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고민하고 기획하며 발빠르게 실천하는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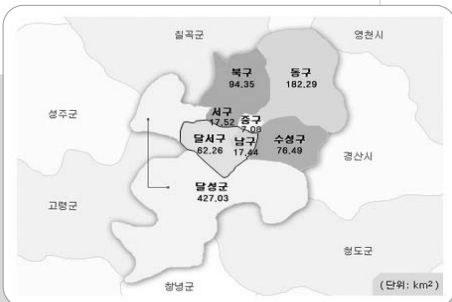


달서구립도원도서관

대구광역시의 도서관들

대구광역시는 7개구와 1개군에 25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다. 이중 달서구 인구가 60만 정도로 가장 많다. 또한 달서구는 200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돼 정부포상 수상(대통령상)과 함께 지원받게 되는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힌바 있다.

대구에는 공공도서관 12개관과 분관 2개관, 대학도서관 12개관, 학교도서관 400개관 정도가 있다. 그 중 달서구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두류도서관, 학생문화센터, 작년에 개관한 달서구립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등 4개관과 사립공공도서관인 새벗도서관이 있다.



대구광역시 지도 ▲

그동안 대구지역에는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들만 있었는데, 작년에 달서구립도원도서관과 달서어린이도서관 2개관이 개관해 처음으로 지자체 소속의 도서관이 문을 열게 되었다. 이에 <도서관문화>에서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대구 달서구에 새로 문을 연 달서구립도원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도서관 입지는 도서관의 핵

매번 도서관을 탐방할 때마다 도서관의 입지가 좋아야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지역 내 핵심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달서구립도원도서관은 아파트 사이 큰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큰 통유리가 눈에 띄는 근사한 건물 앞에 서니 시원스러움과 세련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일까... 도원도서관은 '2006 대구 건축상'에서 동상을 받기도 했다.

통유리 너머로 도서관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보였다. 저마다 자유롭게 책을 읽는 풍경이 아름답게 비춰졌다. '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문구가 문득 머릿속으로 스쳐지나갔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역시나 로비에도 사람들이 저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들이 편안한 동네 쉼터 같았다.

우리는 그 모습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다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배은숙 관장과 강별걸 팀장, 달서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강근석 팀장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잠시 인사를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도서관 운영 현황

달서구립도원도서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의회 승인이 2004년 11월 17일에,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2005년 5월 10일에, 도서관 개관준비단 발족이 2005년 7월 29일에,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05년 8월에서 2006년 3월까지 진행되어 2006년 3월 28일에 개관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약 6만권의 장서, 1,780종



▲ 도원도서관 전경





어린이실 풍경 ▲



유아실 풍경 ▲



디지털자료실 풍경 ▲



종합자료실 풍경 ▲

의 디지털자료 등을 갖추고 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휴관을 한다. 일반열람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이용자가 1,000명이 넘는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아직 개관한 지 1년도 채 안됐지만 도서회원가입자는 벌써 16,000명에 달한다. 도서관은 의욕적인 10명의 직원들이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구의원, 문인, 교육계,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도서관운영위원회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도서관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달서구립도원도서관의 활발한 움직임은 지역 내에서 도서관이 핵심 문화시설로 인정받는데 초석이 되었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구립도서관을 다섯 군데 더 만들기로 계획하고 권역별로 도서관 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성서권은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이곡분수공원 안에 3층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송현권, 월배권, 본리권, 성당두류권의 순으로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층별 정보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문화교실 등이, 2층에는 종합자료실I과 디지털자료실이, 3층에는 종합자료실II와 시청각실이 있다.

이중 단연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린이열람실과 디지털자료실이었다.

1층 어린이열람실은 온돌바닥으로 되어있어 따뜻했으며 가구와 벽지 등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어린이열람실 안쪽으로는 유아실도 마련되어 있어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2층 디지털자료실은 검색코너, 멀티미디어제작코너, DVD 관람 코너, 어학 학습 코너 등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자동예약시스템 제의 도입 등으로 안정적이고 차분해 보였다. 종합자료실I에는 각종 문학·역사자료 열람 및 대출, 정기간행물 열람 등이 가능했다.

3층 종합자료실II에는 인문·과학·예술 관련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참살이(헬빙) 추천 코너'가 운영되고 있었다. 참살이 추천도서 코너에는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식·주, 건강, 문화, 레저 관련 도서 320여 권이 비치돼 있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다.

4층 옥상은 지금은 겨울이라 개방하지 않았지만 봄·가을에는 도서관 행사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한다고 한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독서진흥 활동

도서사랑나눔터 운영

도서관 중앙현관에 “도서사랑 나눔터”를 설치해 기증받은 도서 700권 정도를 비치해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있으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잘 읽지 않는 도서를 “도서사랑 나눔터”에 자율적으로 비치하여 무료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화구연 강사 및 발표회

2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자들이 “옛날 옛날에”라는 들려주는 동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주체가 되어 그동안 배운 동화구연발표, 시 낭송, 뮤지컬 등의 발표회를 갖는 행사도 마련했다. 향후 달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동화구연발표 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교육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 초등학생, 중학생 각 20명 정도씩 마음을 다스리는 독서치료, 도서선택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을 연중 실시하며 도서관 이용방법 안내, 올바른 독서지도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클럽운영

주부들 대상으로 월 2회 “한빛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22명으로 독서토론, 작품발표회, 문학기행, 창작활동을 펼치며 자원봉사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북스타트운동 시행

평생학습도시인 대구 달서구는 지난 12월 6일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으로부터 북스타트 운동 시행지역으로



▲ 종합자료실 품경



▲ 참살이(웰빙)추천코너



▲ 도서사랑나눔터



▲ 동화구연 발표회



▲ 한빛독서회

지정되어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북스타트 추진위원회'와 '자원봉사단' 등을 구성했다. 북스타트 운동 추진과 관련해 달서구립도원도서관과 달서어린이도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책을 읽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서비스 실시

도서관·행정문고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도원도서관에서는 2007년 중점사업으로 통합관리문고 자료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관내 분산되어 있는 행정문고 7개소(행정정보문고센터, 첨단문화회관, 죽전동·도원동·장기동·용산1동, 이곡2동 주민자치센터문고)를 도원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통합 도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달서구 관내 도서관·행정문고에서 발급 받는 회원증으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도서반납SMS 통보제 시행

2007년 2월부터는 도서반납일 SMS 통보제도 실시한다. 도서반납일·연체일수를 사전에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해 줌으로써 도서의 연체방지 및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원활하게 대출하려고 마련한 것이다.

희망도서신청결과 E-mail 통보제 시행

2007년 1월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희망도서 코너에 신청한 도서 중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를 월 2회 구입가능한데 이때 희망도서신청 결과를 e-mail로 알려주고 있다.

나오면서


달서구립도원도서관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잘 운용되고 있는 도서관으로 손꼽을만 하다. 관장 이하 도서관 직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도서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관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도서관이지만 돌아보면서 차별되는 운영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일반열

람실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도서관이 보유한 자원을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를 위해 도서사랑 나눔터, 참살이(엘빙) 추천도서 코너 운영, 지역 문고와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서관 SMS서비스, 희망도서 E-mail 서비스 등 철저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계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도서관의 문화강좌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열고 있는 취미교실 강좌는 피하고 독서와 관련된 특화된 강좌를 중심으로 개설하고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셋째,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1차적으로 3개팀을 구성해 서울·경기, 충청, 강원권의 도서관을 비교 견학하게 했다.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에 접목시키려는 의도로 1년에 1~2번 정도는 계속해서 실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도서관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계획한 달서구립도원도서관의 운영방식은 좋은 도서관 만들기에 많은 보탬이 된 것 같다. 인력문제, 주5일근무제, 야간개관 시간 연장 등 공공도서관에 산재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달서구립도원도서관도 당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층 더 발전된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 노력으로 도서관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독서클럽 주부회원들과 방학 기간 학생 봉사자들이 자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틀이 잡히면 체계적인 자원봉사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도서관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고민하고 기획하며 발빠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다시한번 깨닫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권역별로 도서관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달서구의 사례가 대구에, 아니 나아가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 : 심효정, 사진 : 심효정, 최인경)



▲ 로비 풍경

▼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모습

